

합니다. 결국 그 지역은 이런 여러가지 내부 진통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서로 갈라서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본모습을 올바르게 고쳐나가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하는 사람은 솔직한 품성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솔직한 품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모든일에 있어서 자신보다는 주민의 입장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2) 소박한 품성

소박한 품성은 공명심이나 허영에 가득찬 품성과는 반대됩니다. 지역일을 하는데 일부 임원중에는 지역주민의 고민에는 관심을 쏟지않고 자기 사람을 얼마큼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지역내에서 네편 내편을 갈라묘한 파벌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사람을 만들기에 급급한 사람은 항상 이해관계에 달려들기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박한 사람은 지역에서 자기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자신의 성실한 삶과 올바른 지역입장을 견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실세가 없다 해서 무시하지 않고 실세가 있다해서 굴종하는 것이 아닌, 지역일의 올바른 방향과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임원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신통치 않은 벌이 인데도 불구하고 화려한 생활을 영위한다든가 사치풍조에 빠져있는 사람이나, 노동 자체를 전혀 하려 들지도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분명 소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싸움 등을 통해 자기 명예욕이나 공명심에 빠져 마치 자신이 우두머리, 즉 대장이 되어 빠기려는 사람, 뭔가 대단한 일을 벌여서 이름을 날려보려는 사람 또한 소박한 품성의 소유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소박한 품성의 소유자는 한마디로 남이 자신을 대할 때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갖지않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자신을 비굴하게 보이지도 않고 남을 알잡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판단합니다.

3) 겸손한 품성

겸손한 품성은 한마디로 거만하거나 지배하려 들지않는 품성을 말합니다. 철거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만, 별것도 아닌것이 설친다고 무시하려 든다든가, 자기 주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 - 관에 권력을 쥐고있는 사람, 경, 검찰 요직에 있는 사람 등 -을 알고 있다고 빠기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밑에는 힘깨나 쓰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떠들면서 아랫사람을 짓누르려 들거나 거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겸손한 품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태도를 취한다거나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지역일은 자기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식의 유아독존은

지역일에 있어서 해악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려 들지 않으며, 일을 어느 누구와도 상의없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이 자신에 대한 추종을 흐뭇해 하거나 자신의 위치와 가치가 높아진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겸손한 품성의 소유자는 항상 상대의 올바른 점과 그 사람의 여러가지 장점과 능력을 포함하여 단점까지도 인정하려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즉각적으로 고쳐나가는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철거지역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겸손하지 못한 독선적인 자세에서부터 시작되어 큰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성실한 품성

성실한 품성은 자기생활에 대해 나태하거나 방탕하지 않은 품성을 말합니다. 매일 매일의 생활과 행동을 계획성 있게 하고, 자기 생활에 규율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종일 술과 당구, 그리고 노름에 빠져 살아간다거나 무계획적으로 뭍 가는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생활을 성실하다고는 보지 않을 겁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의 핑계를 잘 대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더러 공상에 빠져 일확천금이나 꿈꾸게 됩니다. 이런 사



람들은 지역 일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귀찮게만 느끼고 힘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살살 빠져나갈 궁리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철거싸움은 상대 - 조합, 정부, 건설업체 등 - 와의 관계에서 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무식하고 나태해서 못사는 것을 이제 와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열등감에 젖어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 할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스스로가 그들이 말하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될것입니다.

5. 용감한 품성

마지막으로 용감한 품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감한 품성은 비겁하지 않은 품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윗 사람의 처사가 매우 불만스럽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도 따지면은 자기에게 무슨 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겁이 나서 아무말도 하지 못한다든가, 동료가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것을 알면서도 겁이 나서 도와주지 않는것 등은 용감한 품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들입니다.

특히 힘있는 사람 앞에서는 꺾소리 못하다가 만만한 사람 앞에서는 제멋대로 군다든가 큰소리를 치는 사람은 제대로 용기를 발휘할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대부분은 강제철거



나 일반 집회시, 평상시에는 마치 무슨 일이라도 벌릴것처럼 큰 소리를 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이후 공식적인 자리는 피하고 자기와 친한 사람을 통해 갖가지 비방을 늘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행위는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는 못합니다.

용감한 품성을 지닌 사람은 괜히 남 앞에 나서서 잘난체 하기보다는 비판해야 할 점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올바르게 비판하고, 싸워야 할 일에는 굴하지 않고 항상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해야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힘있게 달려들어 해냅니다. 그리고 지역일을 항상 내 일처럼 나서서 과감하게 해내는 품성을 말합니다.



3. 조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자세

올바른 조직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중요한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거싸움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어느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일은 아닙니다. 조직에 소속된 모든 이들에 공통된 임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원 하나 하나의 자세가 올바로 섰을 때만이 조직은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고, 튼튼하고 견고한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에도 한걸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거싸움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공공임대주택 쟁취'나 '가이주단지 조성' 즉, 주거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임대주택 보다는 딱지를 받는것이 좋다거나, 가이주단지 보다는 이주보상비나 조금 받아서 나가려는 생각을 갖고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다수의 의견이 임대주택과 가이주단지를 원한다면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따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조합이나 구청등에 농성을 가는 경우에는 자신은 중요치 않게 생각된다 하여 목살시키거나 다른 주민마저 참여를 못하게 막는 행위 등은 비조직적인 자세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모든 일을 항상 자신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자세는 매우 위험스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결정난 일을 별 특별한 일도 아닌데 마치 큰일이 난것처럼 말하면서 지역일에 동참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보는 행위 등은 지역활동에서

철저히 배척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일련의 자세들이 결국 지역일에 있어서나 주민 상호간에 불신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원이 가져야 할 자세에 있어서 몇가지 간추려 보면 첫째는, 조직원 자신의 생각과 자세를 올바르게 가져야겠습니다. 우선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동료애가 돈독해야 하고, 철거싸움이란 어려운 환경속에서 곳곳하게 일어서는 동료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보호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주민은 나하고 입장이 같으니까 신경을 좀더 써주고, 저 주민은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식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행동에 즉각 옮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들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철거투쟁은 여러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니다. 모인 사람들 모두가 살아온 토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 세력과 싸워내야 합니다. 싸움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의 의견도 하나여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주장을, 저 사람은 저 주장을 하게되면 상대가 우리들을 오합지졸로 보고 막 대하려고 들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서로의 주장들을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야 합니다.

▶ 그래야만 엄청난 물리력과 재력에 맞서 싸워 나갈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이고 단체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만들기 전에는 혼자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해야 했지만 조직이 만들어지면 각 개인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문제라 하더라도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동료와 함께 공동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과 동지는 누구

▶ 세제는, 우리가 싸워야할 대상이 누구인가 - 우리 자신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사람 -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철거 싸움 뿐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싸움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조직이 설정한 목적으로 나아가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 가끔 지역의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주민중 일부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에게 과거의 인맥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 조직의 중요한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갖가지 방안들을 짜내고 있는데 우리의 활동의 일거수 일투족이 낱낱히 파악된다면 오히려 우리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역으로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민들은 우리 내부의 비밀들을 흘려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비밀을 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럴때만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투쟁의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과연 누구이고, 그리고 접촉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를 알아봅시다.



▶▶ 그것은 두말 할것도 없이 조합이나 건설업체, 나아가 정부입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복부인, 투기꾼을 들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목적 -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자신들의 재산 증식처로 활용하는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자신들의 정치 잇속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건설업체와 복부인, 투기꾼들은 거기에 빌붙어 나름대로 재산을 불려나갑니다.

▶▶ 이들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부동산 업자, 통장, 친 정부인사 등도 우리의 움직임을 시시각각 파악하여 관에 보고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책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동지 -함께 어깨걸고 싸워나갈 수 있는 사람 -는 누구인가를 알아야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편을 말합니다. 우리 철거민에게는 많은 동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택문제로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고있는 철거지역 주민이 있고, 나아가 우리처럼 가진자들의 횡포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노동자, 농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중에는 빈민촌이면서도 노동자가 함께 살고있는 지역도 있고, 또한 주민중에 노동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도시빈민은 농촌에서 살다 살다 못견더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런점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수가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들어나는 것이 학

생들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주민은 학생들이 너무 과격해서 함께 하면 '발갱이나 폭력만을 일삼는 집단'으로 오해받아 우리의 순수한 목적인 주거권 쟁취가 어려워진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것이 학생들도 따지고 보면 바로 우리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과연 자식들이 부모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함에도 거부할까요? 절대로 그런 자식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학생들도 우리의 싸움이 정당하고 올바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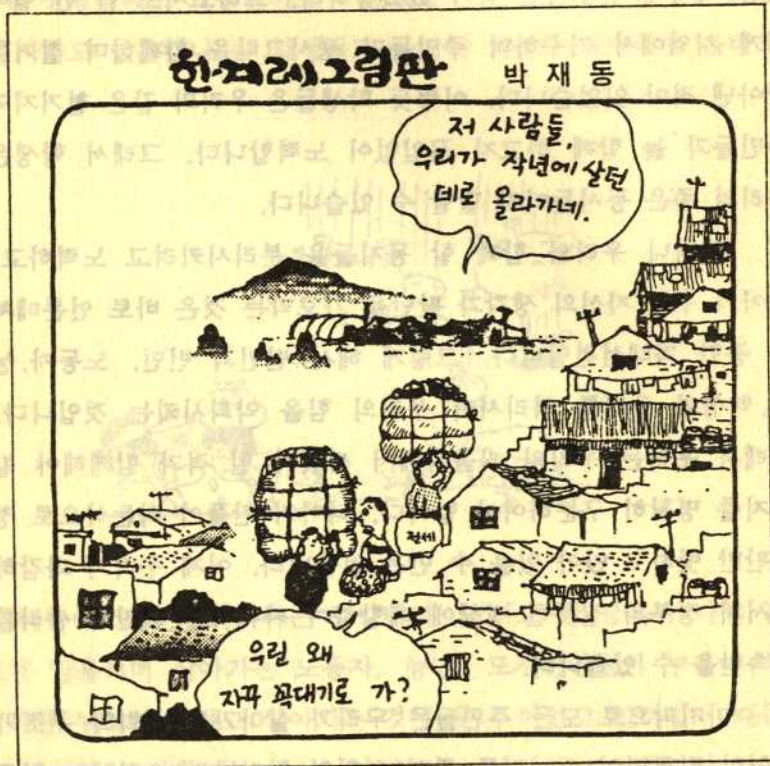
기 때문에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못내 아쉽고 안타깝기 때문에 자신들의 작은 목소리이나마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철거지역중 한 곳이 철거장폐들에 의해 거의 쫓겨날 위기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주민들의 힘으로는 철거장폐들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철거장폐들에 의해 지역에서 쫓겨나다시피 인근 학교로 피신을 하였고, 이에 소식을 접한 각 학교에서는 학생을 동원하여 폭력이 난무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강제철거를 막아내고 주민들을 다시금 지역에 안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도 약 한 달이 넘게 지역에서 거주하며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철거를 막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은 우리와 같은 철거지역 주민들과 늘 함께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우리의 좋은 동지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할 동지들을 분리시키려고 노력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언론매체를 통한 과대선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빈민과 빈민, 노동자, 농민, 학생과 우리를 격리시켜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속에서 싸워야 할 적과 함께해야 할 동지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한풀이 하는식으로 정치판만 탕하고 앉아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감히 나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항하여 싸워나갈 때만이 승리를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주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좀더 명확히 알아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지만 현재 우리가 당하는

철거의 현실도 알고보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지역의 집들이 험하고 불량해서 개발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도 사회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깔려있고,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하는 내막이 있습니다.



흔히 텔레비전을 보면 정부의 고위급 사람들이 뉴스 시간대에 나와서 '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벌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환수조치'가 어떻고, '도시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보급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등의 화려한 말들을 늘어놓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철거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회구조가 잘사는 사람 위주로 정책들이 몰아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알아나가는 자세, 나아가 우리 철거민들의 갈 곳을 막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임무

앞장에서 조직을 말할때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조직은 사람을 모아서 일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기본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같은 철거민의 조직 - 대책위 -은 모인 사람들의 이타를 최대한 방지하고 한 곳으로 끌어모아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려면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잘 꾸려나가는 하는데, 이때 지도자 - 대책위 임원급 -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판단 잘

못으로 인해 그동안 잘 진행되어왔던 지역의 일이 하루 아침에 무산되거나 와해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대책 위가 풍지박산 되고나면 다시금 지역을 살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희생되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렇듯 지도자의 역할은 지역일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몸가짐 하나 하나가 조심스러워야 하고, 나아가 혼자 몸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고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자세를 갖추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임원들은 항상 이점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몇가지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먹으려 하지않는 말의 꼬투리를 억지로 끌고가는 것은 금물

첫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겠습니다. 지역의 지도자중에는 가끔씩 말은 번지르하게 하면서 실제 행동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칫하면 주민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기가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지역 일을 하면서도 뭐가 뭔지 잘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일단 지역의 임원 말이라면 신뢰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말에 대한 실천과정에서 임원 자신이 한 말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 주민 대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됩니다. 이런 과정이 몇번에 걸쳐 반복되면 올바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모든 임원은 자신의 말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땐 아무말이나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이말이 지역 일에 화근이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판단이 섰다 하더라도 다시한번 되짚어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최종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되물어 확인하는 신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 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때 주민은 지도자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지역의 임원급들은 가끔씩 주민이 잘 모를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행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판단은 매우 발전되어 나가기때문에 과거의 생각으로 문제를 정리해서는 안됩니다. 지역임원 또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맞물려서 판단등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생각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임원의 사고는 처음이나 매한가지라면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지역의 임원은 늘상 새로운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주민 각 개인 하나 하나에 대해 최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충분한 배려를 해야겠습니다. 조직일을 하다보면 짜증스런 때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역의 임원은 이제 혼자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만나고 싶지 않은 주민일지라도 만나야 하는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대부분 지역을 보면 임원도 사람인데 어떻게 싫은 사람을 만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과 일은 분명하게 구분할줄 알아야 합니다.

‘주거권 실현’을 향한 우리의 공동노력은 ‘없는 사람은 더 불어 살 수 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성을 찾는 것도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인간적인 관계가 두텁치 못할 때 어떤 목적도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임원들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검토한 후 가능한 방법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지 않는 주민들의 고충도 시간나는 대로 파악하려는 자세를 갖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중 누군가가 실수를 하였다 하여 완전 매도할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직에 결정적인 위해요소가 아니면 넓게 감싸안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지도자는 ‘나를 잊어 버려야’ 할 겁니다.

세제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사고를 갖지 말아야겠습니다. 지역의 임원들은 주민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비단 ‘주거권 실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쟁을 통해 ‘인간성의 회복’도 함께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살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한 인격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누군가에게 예속당하고 구속당하게끔 살아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가 잠시 역할이 그렇게 주어졌다고 해서 주민을 무시하려 든다든가 그 위에 군림하려 든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지

배하려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게 없습니다.

무릇 지배집단은 이러한 군림이 일반화되어 있어 모든 것이 명령식으로 전달되어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이런 집단은 인간의 자주성, 주체성이 상실되어 있어 인간을 도구화시켜 비인간화로 나아갑니다. 분명 우리들의 지도자는 이와는 다릅니다. 항상 주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역할일 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는 기쁨도 고통도 주민과 함께 나누어 지지, 절대로 일방적인 명령이나 권위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네제는, 정직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의 지도자가 어떤 위기상황을 넘기기 위해 둘러댄다든가 거짓을 말하게 되면 과연 주민들은 그런 임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지역내의 좋지 않은 금전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어느 누가 그를 믿겠습니까. 모름지기 지역의 임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직성과 도덕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내에 어느 정도 대책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대책비가 어떻게 걷혔고 또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주민들이 물렸을 때 갖가지 억측이 난무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매달 주민에게 사용내역을 공개한다면 오해의 소지는 최소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아무일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일들이 바로 불신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임원들은 알아야겠습니다. 모든 지역의 지도자는 주민을 대할 때 불명확

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항상 정직해야 하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와야합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약속은 절대 금물입니다. 안되면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자세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이 서지않는 일은 침묵하는 자세가 오히려 앞으로 일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판단이 서고 주민의 의견이 집약되었으면 힘차게 밀어부치는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 의견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여 어떤 결단을 내려 주민의 동의를 꼭 얻어내서 실천에 옮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단이 지연될 때 또다른 상황이 닥쳐올수도 있고, 주민들의 의지도 많이 약화되어 실제 일을 추진할 때는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어느 곳 -구청이나 조합 등-에 농성을 들어갔을때 갑자기 계산밖의 상황들이 전개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지도자는 상황을 빨리 판단하여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하도록 치밀한 판단력과 결단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판단이 안설땐 몇가지 안을 제안해 임원회의를 긴급 소집한다든가, 농성주민의 의견을 물어 일을 순발력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듯 지도자는 냉철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고 주민을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해 보면, 우선 올바른 방침과 정

책을 수립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스스로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결단과 적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의 임원 모두는 행동자체가 항상 주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품성이란

이야기 해 봅시다.

1. 우리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 살아오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점이 잘 되었고, 또한 어떤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 해 봅시다.
2. 우리가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을 솔직히 얘기해 보고, 임원중에 잘된 점은 무엇이고, 시정해야 할 점은 어떤것이 있는가를 이야기 해 봅시다.
3. 대책위의 활동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있는 그대로 나누어 봅시다.



보 론 I

행정서식

1. 신청서나 진정서를 볼 때

1) 신청서나 진정서는 어떤 경우에도 신청서나 진정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과 이웃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시정하여야 할 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집은 개별주택은 아니므로, 신청서나 진정서는 신청자와 더불어 세입자나 보충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서 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보충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나 진정서를, 보충근거가 인위적으로 사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될까 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근거가 개인 주택에 대해 성취 할지도 못한 상태에 있어 신청과 관련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공동으로 서명한 내용을 접수하여, 경우관계기관에 진정을 하게 되거나 진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도 주민 대표가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우선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 대표가 직접 관계기관 방문을 통하여 접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달연은 물론 주민들의 정도의 사안이 정과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나 진정서 쓰는 방법

- ① 진정을 해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 ② 신청서 내용과 함께 각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③ 서명을 받은 신청서와 내용을 함께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1. 진정서나 탄원서를 쓸 경우

1) 진정서와 탄원서는 어떤 경우에 쓰는가 ?

진정서나 탄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신과 이웃의 생활에 어떤 침해들 당하였을 때 사건과 관련된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계 당국에 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같은 개발지역은 대부분이 개발지구로 묶이면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와 더불어 세입자의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보상문제가 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나 건설업체, 조합등이 임의로 사업 자체를 진행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개인 세입자들이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발과 관련되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공동으로 서명한 내용을 첨부하여 정부관계기관에 진정을 하게 되거나 탄원을 하게 됩니다. 방법도 주민 대표가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 대표가 직접 관계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시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은 발송 후 약 1주일 정도의 시일이 경과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진정서나 탄원서 쓰는 요령

- ① 진정을 해야 될 내용을 정리합니다.
- ② 진정서 내용과 함께 각 세대별 세입자를 중심으로 서명을 받습니다.
- ③ 서명을 받은 서명지와 내용을 함께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 ④ 주의할 점은 서명을 받을때 주민들이 진정서 내용에 대해 이해가 가도록 설득시켜 내야합니다.

3) 진정서나 탄원서에 들어갈 내용

- ① 지역이 처한 실정과 주민의 생활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토록 해야 합니다.
- ② 현재 개발진행 정도와 주민대책을 아는데까지 기술토록 합니다.
- ③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실정에 맞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너무 무리한 요구사항은 절대 금물입니다.

4) 진정서 서명날인 양식

번호	성 명 주 소	가족수	서명날인
1	홍 길 동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2-114 (7/3)	5	인장사용
2			

- ① 서명을 할때는 본인 친필로 쓰도록 해야 합니다.
- ② 서명자는 세대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 서명날인은 인장을 찍도록 해야 합니다. 싸인이나 지장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탄원서의 사례 : 별첨 사례 1. 참조

2. 고소, 고발장을 써야 될 경우

「고소」는 통상 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보냅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이지만 간단한 피해신고서와 다른 것은 범죄사실만의 신고가 아니며, 범인에 대하여 확실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입니다. 특히 고소에는 친고죄 같은 것도 있어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범인을 법원에 기소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와 같이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발도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수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나, 특별법에는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고소내지는 심리의 조건이 되는 고발도 있습니다.

지역일을 하다보면 조합이나 건설회사, 혹은 관할구청의 부당한 횡포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그냥 앉아서 당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분명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냥 지나쳐 경제적,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가해자를 관할 경찰서나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여 기본적인 보상관계나 치상협의를 특히 개발지역은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해 강제철거를 할때 주민들이 살고있는 집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때 가구가 파손되거나 인명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우리는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살상 행위에 대해 가해자를 관할기관에 고발조치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를 알고 있으면 일단 고소하는 것 자체는 쉬어집니다. 그러나 강제철거가 자행될 때 가해자를 기억해 내기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고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시켜놓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철거반원이 폭력조직이 많아 전과사실이 붙어 있어 수세에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됩니다. 일차적으로 조합을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고소장 쓰는 방법은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여도 좋고,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도 좋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질의서를 보내야 하는 경우

질의서는 주무관청이나 정부기관에 의문난 점이 있을 때 세입자대책위원회 명의로 질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면 됩니다. 예를들어 지역주민이 서명하여 보낸 진정서나 탄원서에 대한 답변이 신통치가 없을시 다시금 그 답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필요로 할때 질의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의서가 생각했던 만큼 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단 질의서를 보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신등을 통한 공문서가 나중에 어떤 증거자료로 활용되거나 지역주민 내부의 의문점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내에 세입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미심쩍어 하는 부분이 주민 내부에는 항상 잔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해서도 안됩니다. 만약

어떤 문제에 대해 둘러되어 그 순간을 모면할 때 이후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면 지역주민들의 이해도 그만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책을 수립하는데도 일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지역내에서 철거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때가 생기게 되던가 귀중품이나 금전을 분실할 때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받는 방법을 잘모르거나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분명 타인에 의한 피해가 명백함으로 보상을 받아내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인 요구를 하게되면 타지역의 예처럼 보상은 받아 낼수가 있습니다. 보상요구 양식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일차적인 절차는 <사례 2>에 의 해 하면 됩니다.

< 사례 1. 노원구 증계동 48번지 세입자대책위원회 작성 >

탄 원 서

존경하는 〇〇〇 귀하

시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노원구 증계동 48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50여세대 200여 주민들입니다. 직접 면담을 요구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바쁘신 직무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서면으로 탄원을 드리오니 저희들에 딱한 입장을 해결하여 주시옵기 요망드립니다.

저희들이 살고있는 이곳은 서울에서 보기 힘든 빈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좁은 방 한칸에서 한 가정이 어린 자식들과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세대가 보증금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에 월 임대료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지불하면서 건설현장의 막노동과 운전기사 등으로 힘겹게 생활하면서도 밝은 내일을 기다리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진실을 제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의 확대에 따른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어 온것으로 생각되지만, 정작 우리들에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무주택자들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중랑지역 주택조합"에서는 이곳에서 장기간 거주해 온 세입자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나 예고도 없이 일방적인 법적 명도소송을 제기해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상으로 쫓겨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주민들도 여러곳을 찾아 다니며 자문을 구해봤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아무런 보호대책이 없다고 합

니다. 이런 상황속에 강제철거가 실행된다면 우리들에 처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예상하시리라 믿습니다.

〇〇〇 님 !

저희들의 요구는 커다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철거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되도록 저희가 이 곳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니 이 곳에서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훌륭한 시 정책이 우리 지역주민에게도 좋은 혜택이 있기를 기대 합니다. 우선 많고 복잡한 시정의 어려움에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이 곳 주민들에 입장을 다시한번 돌아보시어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발전해 나가는 국가경제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〇〇〇님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같이하시길 기원합니다.

1991년 4월 12일

노원구 증계동 48번지 세입자대책위원회 일동

< 사례 2. 폭행상해에 대한 고소장 >

고 소 장

고 소 인 : 홍길동 (洪吉童) 1950.5.18.생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 6동 58번지

- 피고소인 : 1. 김철수 신당 4-1지구 재개발조합장
주 소 : 재개발조합 사무실 및 개인 주소
2. 김영수 (재개발조합 소속 철거반원)
주 소 : 재개발조합 사무실
3. 성명미상 (재개발조합 소속 철거반원)
주 소 : 재개발조합 사무실

고소사유 : 사전통고나 계고장도 없이 강제철거를 집행하여
고소인을 조합측 소속 철거강패가 가한 폭행상
해사건.

고소내용 : 19년 월 일 오전 8시경 신당 4-1지구 주택
개량 재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신당6동 58번지
고소인의 집에는 아이들의 등교를 위해 조반을
준비하고 있던 중, 신당4-1지구 재개발조합 측
이 동원한 철거강패들이 사전 철거통보나 계고
장도 없이 들어다쳐 철거를 강행하려 하였습니
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향해
매달려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일체 무시하고 고
소인을 피고소인들이 집단으로 달려들어 발과
주먹등을 사용하여 차고 때리며 밖으로 내던졌
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갖 욕설을 자식들
보는 앞에서 마구 내뱉어 자식들 보기조차 민
망할 정도였고, 아이들은 등교마저 거부하였습
니다. 고소인은 정신을 잃고 넘어졌고 이웃 주
민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허리와 어깨에 심한 타박상과 골절
상을 입어 지금도 병원에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인뿐만 아니고 수많은 주민
들도 신체에 상해를 입고 가정과 병원에서 치
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가입된 세
입자대책위원회가 재개발조합측과 원만한 협상
을 위해 노력해 왔던점에 미루어 조합측에 일방
적인 행패임과 아울러 조합측이 고용한 철거강
패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사료됩
니다.

위 사실을 고소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하여 범
법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9 년 월 일

고 소 인 : 홍길동 (인)

서울 중부경찰서 귀증

- 첨부서류 : 1. 현장사진 1부.
- 2. 부상자 사진 1부.
- 3. 진단서 1부. 끝.

< 사례 3. 돈암동, 동소문동 세입자대책위원회가 성북구청장에게 보내는 질의서 >

질 의 서

수 신 : 성북구청장 1990년 4월 2일

발 신 : 동소문동, 돈암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제 목 : 진정서 회시에 대한 질의

1. 성북구청의 1990. 3. 28 자 주택 01254-9838호 진정서 회시에 관한 질의입니다.
2. 본인들은 90.3.24 "지역내에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세입자들을 입주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귀 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90.3.26 구청장님과 지역주민이 구민회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세입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90.3.28에는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세입자들의 의견이 모두 수용되었으므로 ① 현장사무실 건립 협조 ② 입주세입자 조사 선별 ③ 자진철거 이주 준비"를 요구하는 구청장님 명의의 공문서가 본 세대위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신 구청장님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동 회시에 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 믿습니다.

3. 질의사항

가. 재개발사업에 관계된 모든 업무가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번 구청장님의 결단은 상기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며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울시 행정을 관장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재가가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들은 상호신뢰를 위해서라도 책임성 있는 서울시장님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재개발 구역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는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그 인접지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 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구청은 이 법에 의거하여 영구임대주택 건립시까지 세입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수용 건물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 건립면적 및 입주대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 (89.8.19)'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 영구임대주택 건립 및 입주시기를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마. 구청과 세대위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철거를 연기할 의향은 없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4. 성북구에서 "모든 요구가 수렴되었다"고 회시하였으므로 이상의 의문점이 만족스럽게 답변되리라 기대하며 이후 구청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동소문동, 돈암동 세입자대책위원회

공동의장 이태교

정종기

이도경

이은철

김규상

< 사례 4. 신정 6-2지구 세입자 박은자씨가 가옥주 한영규씨에게 보내는 답변서 >

최고장 (催告狀)에 대한 답변서

지난 92년 1월 13일 귀하가 발송한 최고장(등기 내용증명 16501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보내오니 참고하시고 선 처있길 바랍니다.

당 신정 제6-2지구 재개발사업은 91년 4월 19일자로 양천구 청장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지역임을 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모두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이주독촉을 받아 온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발송하신 최고장에 대해 당 지역의 세입자들도 일정부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당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생활형편을 고려할 때, 이는 너무도 강압적인 처사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비록 영구임대아파트가 보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아파트가 건립될 때까지의 2-3년여 기간동안 거주할 곳이 마땅치 못함은 귀하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영세한 세입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폭등하는 전월세값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처지이고 보면, 앞으로 늙은 노부모와 어린 자식들과 더불어 살아갈 날이 암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저런 이유에서 당 지역의 영세한 세입자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양천구청과 재개발 조합측에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되는 시기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가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청과 재개발 조합측은 늘상 이런 저희의 사정을 묵살하기가 일쑤였고, 심하면 강제

철거를 자행해 저희 가난한 세입자들의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귀하가 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희 가난한 세입자들도 이 땅의 국민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해서 가이주단지가 조성되는 시기까지 귀하가 조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재개발 사업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소한 불화문제가 아님을 거듭 밝혀두며, 아울러 저희 지역의 세입자 모두는 불필요한 싸움을 통해 귀하나 저희가 차후 낮붙히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귀하가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내에 항상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1992년 월 일

발 송 : 박 은 자 (인)	3자 추가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131-158번지 23동 2번	23자 추가
수 신 : 한 영 규	3자 추가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목동아파트 1409동 1305호	25자 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이 시대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세대란 무엇인가? 그것은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세대는 단순히 태어난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의 특성은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의 특성은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의 특성은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와 세대차이 극복을 위한 올바른 운영

보 영인아 ? 른 Ⅱ 세대위의 올바른 운영

우리는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의 특성은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의 특성은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의 특성은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세입자대책위원회의
올바른 운영

1. 「세입자대책위원회」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형태의 모임들을 갖게 됩니다. 친한 친구나 이웃간에 우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 '친목계' 등을 만들기도 하고, 친목도 다지고 생활에 도움도 얻는 '계' 같은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 산악회, 향우회 등의 모임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동네에 살면서도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조기축구회, 배드민트회 등의 모임도 있습니다. 또한 관이 주도하는 새마을 부녀회나 반상회, 바르게살기회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들의 대부분은 어떤 목적을 기필코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친목적인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을 뿐입니다. 특히 관이 주도하는 모임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모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모임과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세입자대책위원회(이하 세대위)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 그리고 세대위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게 되고, 그 모임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집의 형태도 다각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즉 부유층이 사는 대형아파트

나 빌라등이 있고, 서민들이 사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이 있습니다. 거기다 부엌이나 화장실도 재래식 보다는 입식이 더 편리하므로 전환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집의 형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든 -물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 내부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가든 중요한 것은 집이 하나의 상품화 되어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부동산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유층의 대부분은 더 고급스럽고, 더 호화스럽고,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나 빌라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대형화되어 도시서민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부유층이 밀집하여 살고있는 강남지역을 개발할리는 만무하고 그저 가난한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살아가고 있는 달동네를 주대상으로 하여 개발을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달동네는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주택들이 도시미관상 흉한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공유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민간업체들의 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애기가 조금 빛나갔습니다만 세대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주원인도 바로 이런 개발정책의 한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달동네를 중심으로 한 모든 지역이 서울시 -지금 은 자치구로 이관- 로 하여금 개발지구로 지정을 받게되면 항상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지역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조합이나 건설회사, 정부등은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갖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집달리의 형식도 취하고, 공가철거도

자행하고, 막바지에는 강제 철거도 거침없이 자행합니다. 그렇다고 세입자들의 주거대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난 후 하게되면 문제가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작정 세입자들은 당하고 있을수 만은 없다는



생각들을 너 나 없이 하게 되고 정작 문제를 풀기위해 나서면 어떡해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문제로 지역내에서는 술렁되기 시작하고 세입자들은 이웃과 더불어 불만만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모임이 좀더 확대되어 지역내에 거주하는 모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바로 이 대책위가 개발지역에서 조직되는 세입자대책위원회입니다. 세대위가 조직되고 나면 처음에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나가고 이어 분명한 자기요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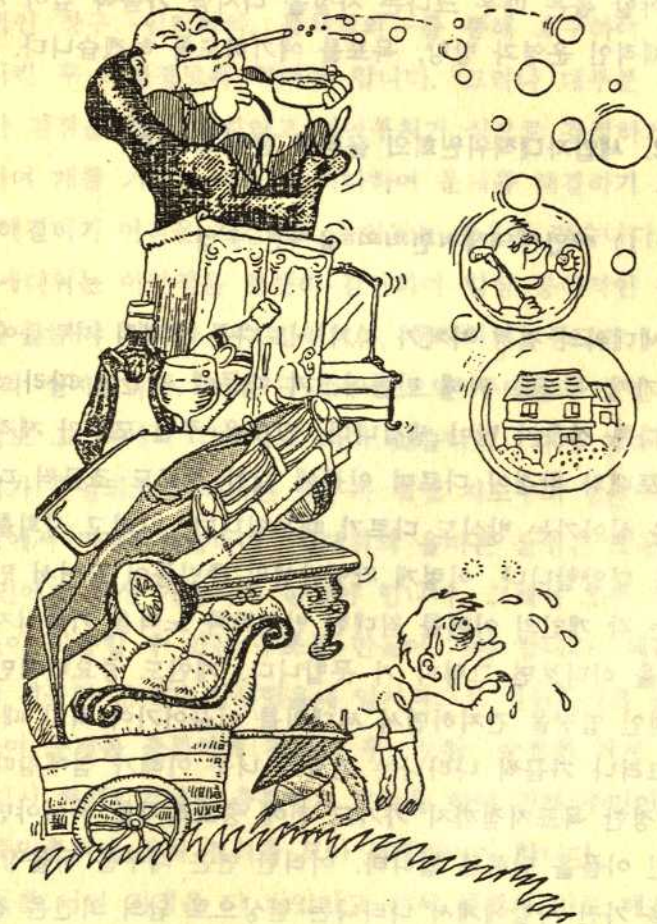


그리고 세대위는 그때부터 소속된 주민들의 권익옹호와 생존권 보장, 주거권 확보를 위해 싸워나가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개발정책은 가난한 영세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어려운 실정을 진정으로 대변해 줄 단체를 찾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하나 하나의 힘이 세대위로 모아지게 되면 개발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우리 세입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길을 만들게 되고, 나아가 세대위가 우리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위의 결성은 기본적으로 세입자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한걸음 더 나가서 전반적인 개발정책의 허구성까지도 낱알이 파헤쳐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단결만이 최선입니다. 반드시 집단은 조직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조직은 협력과 단결을 우선으로 집단성을 갖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아무리 큰 덩어리의 조직이라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더우기 세대위는 하나인데 싸워나가야 할 상대의 조직은 다양한 집단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진것이 없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막강한 힘과 엄청난 재력, 그리고 법과 공권력을 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자신들의 미약한 힘이 하나 하나가 뭉쳐서 여럿이 되어 거대한 조직으로 설때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도 한걸음씩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대위 자체가 뿔뿔히 분열되면 그 싸움은 이미 그르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만큼 세대위는 우리 철거민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직이며 힘의 원천입니다. 이런 조직을 세입자 스스로가 지켜나갈때 나와 우리 모두의 앞날은 밝을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대위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올바른 방향 설정,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엉뚱하고 황당무계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독재적인 일방적인 강요로 운영을 한다면 목표에 다다르기도 전에 조직은 와해되어 버리고 말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에 맞는 역할을 배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세대위가 해야 할 몫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다시금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구체적인 운영과 방향, 목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입자대책위원회의 올바른 운영과 방향

1) 세입자대책위원회의 올바른 운영

세대위의 결성 자체가 각기 서로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가지 목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주민 모두가 제각기 살아온 토대와 환경이 다르며 인생에 대한 목표도 조금씩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 시각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세대위는 각 개인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기울이지만 실제 일을 하다보면 그렇지 가 못합니다. 개인도 중요하지만 항상 전체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세대위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이해가 첨예할때 우리는 설정한 목표지점까지 가기도 전에 중도하차를 하여야만 하는 쓰라린 아픔을 당하곤 합니다. 이러한 면은 대부분 독불장군식의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남의 의견은 전혀 들지 않거나 처음부터 무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주민이 세대위가 정한 입장에 불만을 갖고 있다 합시다. 그렇다고 자신이 갖고있는 불만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트리고 다닌다든가, 파벌을 조성해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대위는 본래의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빗나갑니다. 그래서 결정에 대한 불만이나 못마땅한 의견은 주민 전체가 있는 장소 - 주민총회 -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식적인 창구 -임원회의, 통책회의 -를 통해 요구하여 충분히 이해시킨 후 재결정토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이 이러한 과정을 전혀 밟지않고 밀어부치기 식으로 결정하거나 집단화하여 패를 가르는 경우가 허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위는 이런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항상 공식적인 창구를 설치해 놓아야 합니다. 즉 임원회의, 통책회의, 통모임, 주민총회 등의 설치입니다. 이런 구조가 있으면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어느정도 그 속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러지역의 세대위가 분열되고 와해되는 경우가 몇몇 지도부의 음성적인 조직운영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세대위의 올바른 운영은 모든 조직을 주민에게 항상 개방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를들어 지역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일차적으로 임원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 수정을 거쳐 그 결과를 다시 통책회의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여 전체 주민이 참석하는 주민총회에 부쳐 결의를 모아 집행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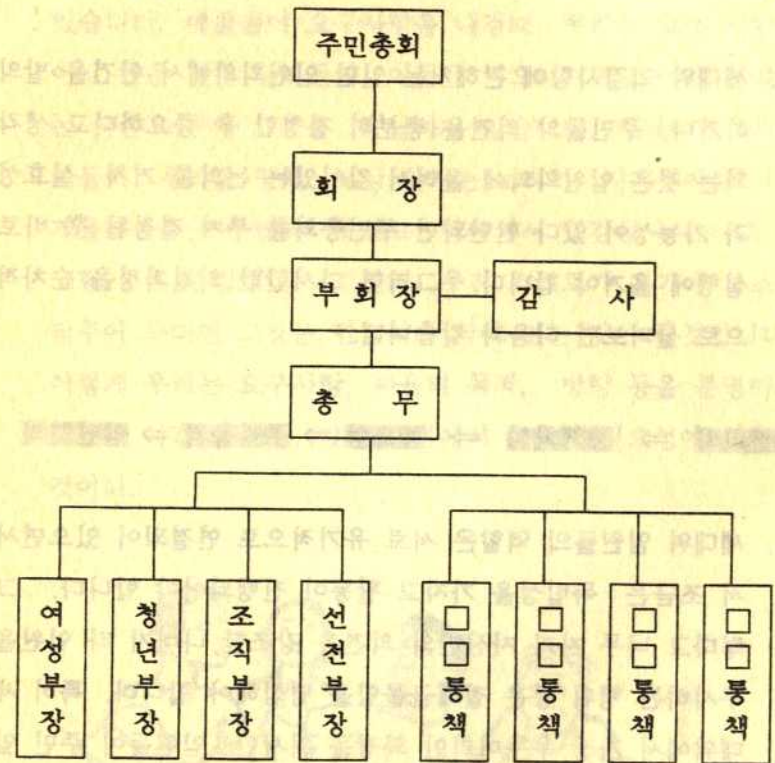
물론 이런 과정을 다 밟았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된 내용을 통모임등을 통해 다시금 홍보하고

설득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럴때만이 세대위가 하는 일이 무리가 따르지 않고 주민들은 세대위에 대한 신뢰에 애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원칙적인 얘기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 하나 들을 방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할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에 제시한 원칙이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문제가 터졌을때 빠른 시간안에 결단을 내리고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겨야 할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될때 등도 예외사항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골격만을 주민총회에서 결의하고 구체적인 집행은 임원급 이상으로 합의하여 사전비밀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천 당일에 통책들을 통해 집결장소와 시간등,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점은 매우 조심스럽지 않으면 파장이 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과정이 끝난 후 오해가 없도록 필히 주민총회에서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일단 지역 세대위의 방침이 정해지면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응도 개별적인 흥분은 최대한 자제토록 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치밀하고 조심스러운 자세가 임원 모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술은 절대금물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세대위 운영상 필요한 몇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위 내에는 조직체계와 회의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조직체계도



회의체계

- 최고 결정기구로서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총회가 있습니다.
-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조직, 여성, 청년등으로 임원회의를 둡니다.
- 임원 및 각 통책으로 구성하는 통책회의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 통책이 주관하는 통책회의를 운영해야 합니다. 통모임 시는 임원중에 조직은 필히 참석하고 타 임원도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야 합니다.

ㄴ. 세대위 의결사항에 관해서는 일단 임원회의에서 안건을 발의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임원회의에 올려서 깊이있는 논의를 거쳐 실효성과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면 주민총회를 부쳐 결정된 후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의결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회의 ⇒ **통책회의** ⇒ **통모임** ⇒ **주민총회** ⇒ **임원회의**

ㄷ. 세대위 임원들의 역할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서 조금은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기 자신만의 의견을 강조한 나머지 타 임원을 무시하는 행위 등은 절대금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세대위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회장을 위시한 임원들이 주민 앞에서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언어나 행동을 스스로 없이 행하게 될 때 주민들은 임원들을 신뢰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ㄹ.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한 교육입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세대위가 하고 있는 일은 대한 정당성과 도덕성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싸우는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싸움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요구사항은 어떤 것으로 정하고, 때 시기적인 대응책은 어떠한가 하는가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싸움은 승리를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요구사항을 내걸때,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니 돈을 몇푼 달라든가, 이돈은 적으니 조금 더 올려달라는 식은 여론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진자들이 우리를 향해 노상 외치는 소리가 자기들이 못나고 게을러서 남 돈벌때 못벌고 이제와서 땡강을 놓는다고 매도할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준다면 그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될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구사항, 싸움의 목적, 방향 등을 분명하게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2) 세대위의 올바른 방향

세대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험하고 무척 힘이 들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자칫 방향을 잘못 세워 엉뚱한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위는 나름대로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기 위해 싸움의 방식이나 방법을 만들어 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넓은 의미에서는 목표나 목적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세대위를 운영하다보면 원래 출발할때 목표나 목적이 잘못잡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때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싸움을 한다해도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결과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집단이 모이면 목표나 목적 등을 포함하여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최대한 관철시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잘못잡힌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인정하기 싫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목표가 잘못 잡혀 있었으니까 우리는 틀렸다고 낙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 모두는 잘못된 목표나 방향에 대해 언제든지 새롭게 수정하여 새로운 각오로 실천하는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꼭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느끼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확실한 목표를 잡아 나갈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워야 할 목표는 무엇이고, 싸우는 목적은 무엇이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싸워나갈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세대위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잃어버린 삶의 터전과 빼앗긴 주거권을 실현시키고, 착취당한 생존권을 되찾아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 아래 우리는 각종 개발정책의 명백한 피해자로서 철거투쟁을 성공리에 막아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주거권 실현에 한걸음 성큼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지역의 세대위가 당면한 철거투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또한 중요하다 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철거반대투쟁이 과연 우리들의 주거권을 진정으로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거는 철거이고, 주거권의 문제는 철거반대투쟁과 또 다른 차원이 아닌가 하는 차별적인 생각들을 갖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 답은 과거 철거투쟁을 경험한 내용을 소개하면 조금은 해결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에 시행되고 있는 개발방식은 과거의 개발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도 과거에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개발을 시행하는데 반해 요즘은 일정한 정도 세입자에 대한 보상책은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있는 세입자 대책을 살펴보면 ㉠ 합동개발 지역의 경우는 개발지역 내에 영구임대주택 14평 (전용 10평, 공유 4평) - 최근 발표된 7차 5개년 계획의 주택공급 계획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 2종에 해당 -과 3개월 주거대책비 중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 택지개발 지역의 경우는 민영이나 개발시행처 -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의 장기임대주택 18평(중계동 지역), 임대주택 13평형(방화지구)을 보상받았습니다. 또한

일반분양 임대주택 (신내지구)을 받는곳도 있습니다. ◎ 신도시 개발지역의 경우는 택지개발지역의 경우와 유사한데 처음 민간부분 임대주택에서 투쟁의 성과로 공공부문 임대주택 18평형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합동재개발 지역에서 보상되는 임대주택과 택지개발지역에서 보상되는 임대주택이 임대료나 관리비에서 많은 차이점이 나고있다. (합동재개발지역의 신정동 6-1지구는 평당 보증금 166,320원, 월세 3,326원, 택지개발. 신도시지역은 보증금 600-700만원, 월세 10만원 정도)

이러한 대책도 따지고 보면 초창기 철거민에게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 묵동, 상계동 등을 비롯한 수많은 철거지역에서 철거민들의 가열찬 투쟁의 성과였습니다. 투쟁성과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2개월 생계대책비 명목으로 보상을 하여 오다가 이후에는 지역내에 짓는 아파트 중 특별분양권 방1칸 - 24평형에 3세대가 방1칸, 부엌1칸 -으로 8평형을 보상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8평에 대한 분양가 (약 1,000만 원이 넘는 금액)를 지불하여야 들어갈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때부터 일명 딱지를 발급하게 되는데 대부분 전대를 하여 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만족해 오다, 그것도 근본적인 주거대책이 아님을 깨달은 세입자들이 계속적으로 임대주택의 건립을 주장하게 되고 정부는 급기야 25만호 영구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철거지역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보상받는 성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서 완전한 주거권이 쟁취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리기준을 강화해냄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수준에 맞

지않는 높은 임대료의 과중한 부과도 문제로 남습니다. 이런 문제 외에도 입주할 아파트가 건설될때까지 살아갈 곳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월세 폭등, 물가폭등 등 갖가지 경제적 압박은 우리같은 서민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2년여가 넘는 기간동안 살집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입주 후철거'를 지킨다는 점에서 가이주 단지의 건립은 우리가 요구해야 할 목표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우리 철거지역 세입자들이 마치 재개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절대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개발사업이 현지에 사는 주민 - 가옥주든 세입자든 - 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고 개발이익금 또한 지역 주민에게 환원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모든 개발사업은 현지주민이 중심이되고 주체가 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외지 투기꾼들의 8-90%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현지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실체는 건설업체, 투기꾼, 정부 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형태의 개발사업이든 세입자들의 요구사항과 목표는 '지구내에 공공임대주택의 건립' 과 '가이주단지의 조성'을 생활권내에 구체화시켜내는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휼빈민이 아니라'는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잡혀 나가야 합니다.

세대위의 투쟁은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뚜렷한 명분'을 갖어야 합니다. 명분없는 싸움은 그 싸움이 아무리 잘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론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우리를 매도하기가 십상입니다. 한 예로 아파트의 평수가 14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상받는다 고 할때, 실 평수가 너무 적으니 좀더 큰 평수로 지어달라는 식의 요구는 '밥을 주니까 승능까지 달란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큼니다. 물론 도저히 한 식구가 들어가서 살수없는 평수(소형영구임대 7평형)는 좀더 다양한 평수로 건립을 촉구할 수는 있어도 같은 형편의 세입자를 위하여 짓는 아파트까지 자신들을 위해 돌려달라는 요구는 어떤 설명으로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국민들은 국민 전체가 낸 세금을 갖고 왜 철거민에게만 지어주느냐는 여론도 있을수 있기때문이다. 즉 이 이야기는 나 살자고 남죽이는 꼴과 하나도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싸움은 가진자들이 하는 짓거리 처럼 남을 죽이자고 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주거문제의 해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양보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점진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공공임대주택이 평생 내집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라리 딱지를 받는것이 현실적으로 낫지 않는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요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주택이 살자리로서가 아니고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쫓겨나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 부당한 일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범한다는 것은 안되겠죠. 우리는 일차적인 목표가 살자리를 만드는 일입니

다. 그 다음은 우리 스스로가 벌어서 내집을 마련하는 길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현대 계속적으로 우리까지 주택가격을 부추긴다면 언제 내집은 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남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비난 받을 명분은 세워서는 안됩니다. 도덕적으로 정직한 명분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세대위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입니다.

가령 한 개발지역내에 여러개의 모임이나 집단이 있다고 할 때, 아마 서로간에 조금씩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다르게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가 대항해야할 대상 -구청이나 조합, 건설회사는 한통속이기 때문에 -은 여럿이지만 하나이고, 우리편은 하나이면서 서로다른 입장때문에 여러개로 나뉘어 있을때 싸움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우기 자칫하면 없이 사는 세입자들끼리 티격 태격 싸우다 종말을 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것을 가리켜 흔히 분열됐다고 하거나 와해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같이 힘없고 뺨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머리수가 많다는 것만큼 커다란 힘이 되는것은 없습니다. 어떤 커다란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커다란 물건을 들어서 다른곳으로 옮겨야 할때, 한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사람이 힘을 합해서 옮기면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의 세대위의 할일이 이런것들입니다.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는 분열인데, 분열은 조직을 양분시켜 아무런 성과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와해됩니다. 분열요소는 다음

과 같은 때 나타납니다. 1) 임원들이 너무 독재를 하거나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주민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불만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파벌을 구성에 끝내는 집행부와 대립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2) 임원들의 결정사항이 공개적이지 못하고 음성적일 때 나타납니다. 지역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동성과 비밀성 유지를 위해 임원 몇몇만이 공유하고 추진되었을 때 일의 성패와 관계없이 주민들은 의문점을 갖게되고 신뢰에도 손상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임원들의 판단이 옳았다 하여도 주민들의 눈은 항상적으로 임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어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내부문제 보다 외부의 회유책동으로 분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조합이나 관은 안면을 통해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하여 세대위 내부를 분열시킵니다. 4) 세대위 내부의 서로간의 입장차이나 감정의 앙금, 주도권 쟁탈을 이유로 분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역상황은 매우 위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이 자기지역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다 보면 자칫 타 지역의 상황이나 움직임에는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최대한 힘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립적인 투쟁은 많은 어려운 점이 뒤따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상대해야 할 적은 매우 치밀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합심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자신의 지역만의 해결을 위해 애쓴다고 한다면 결국 아무런 해결책도 보지 못하고 적들의 탄압에 무너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고립적인 투쟁은 절

대적으로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주거권과 생존권의 보장은 내가 속한 지역만의 투쟁으로는 쟁취되기 어렵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역들이 모일때 목표는 좀더 빨리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같은 철거지역 세대위와의 연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과 지역의 연대는 우리가 지역내에서 주민과 주민들 간의 단결력을 높여나가는 노력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가지 투쟁의 성과물들도 따지고 보면 어느 한 지역이 특출나서도 아니고 개별적인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성과의 이면에는 수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만을 바라고 싸워 왔다면 이는 처음부터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한 지역만의 고립된 싸움에서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투쟁방법 등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되어 한 목소리를 외칠때만이 어떤 요구도 가능해 진다는 것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역내에서는 주민과 주민간의 단결을 높여나가야 하고, 지역과 지역은 서로 단결과 협력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별적이고 고립된 싸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치고 단결력도 약화되어 수세적으로 몰릴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대하고 있는 적들에게 쉽게 무너져 내릴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부의 단결과 더불어 지역간의 연대는 우리 투쟁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세대위의 목표 설정

세대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 보면 목표 설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에서 분양아파트를 보상받길 원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살집보다는 돈으로 보상받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을 보상받길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분분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 낼 수 없을때도 있습니다.

목표는 주민 모두에게 하나의 매력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목표가 주민에게 아무런 매력을 못느끼게 되면 절대 조직활동이나 투쟁의욕이 상실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위는 자기역할을 해낼수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표가 단순히 매력만을 강조한 나머지 부도덕한 목표가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이끌릴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목표가 제아무리 매력이 있다고 해도 부도덕적일 때는 조직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에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저의이며 대의라는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이런 점에서 하나의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최대한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은 현실목표 혹은 실천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실천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현실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이 치르게 될 희생은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목표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목표를 세울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예상을 정밀하게 손익계산을 따진 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책임하고 조잡스럽게 판단하게 되면 이후 사태에 대한 수습이 어려워 지기가 쉽습니다.

이상과 같이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하고, 현실목표나 실천목표를 '전술'이라고 합니다. 전략과 전술 용어의 사용은 우리 주민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세대위라는 조직활동과 투쟁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목표를 제아무리 좋게 세웠다 하더라도 실천목표나 현실목표가 부적합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옛말과 같이 실천 목표를 잘못 세움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철저한 준비와 점검은 필수적입니다. 지극히 감정적이고 즉발적인 판단에서 일을 추진하게 되면 큰 일을 그르치는 일이 왕왕 생기게 되니 매우 조심스러운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 결론적으로

현재 개발지역과 관련되어 세입자의 권익과 주거권 실현을 위해 투쟁해 줄 조직은 바로 세입자대책위원회 밖에 없다는 사실

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대위의 역할과 임무는 매우 막중하고 엄중합니다. 세대위의 조직적 활동이 잘 되고 못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대위는 되도록 자기 지역적 특성에 맞게 활동등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타 지역과의 연대도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대위는 집단적 성격으로서의 조직적 임무와 각 개인의 역할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것은 빠른 시간내에 정리하여 항상 공개성과 민주성을 최대한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히 세대위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지역내에서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처신과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기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엄청난 파생효과가 뒤따름을 명심하고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도부와 주민들 간에 조화를 잘 이룰때 조직활동과 투쟁은 생각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달동네의 부푼 꿈

이 전 작곡



1. 바 지관 우 지관 즐라매고 살-았 -- 네
2. 월 세방 전 세방 떠다니는 우리신 -- 세



바 가지 바박 바바 바박 굽어가며 살았 네
노 동자 한푼 두푼 모아 저-축도 해왔 지



주 택 복권 에 꿈 을 키우 며 회 망도 가져왔 -- 지
입 대 주 택 에 꿈 을 키우 며 회 망도 가져왔 -- 지



임 금 인상 에 소 원 빌어왔 -- 지 여 보야
주 택 정책 은 모두모두땀이 --- 야



이번 임투 에는 주 택 수당따 냅시 다 영 원한 우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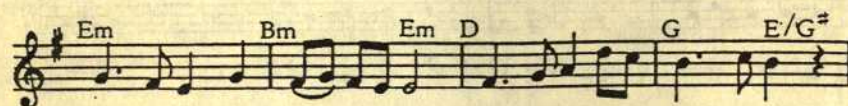
솔아 푸르른 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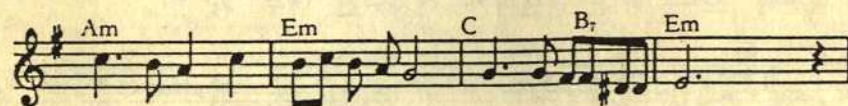
거 센바람 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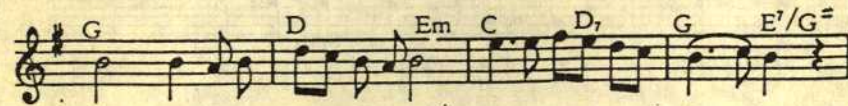
가슴 속 에 사무쳐 우는 갈라진이세상 에 민



중 의뎛 이 주 인되는 참 세상 자유 위 하여



시 퍼 령 게 쭉물들어 도 강 물져어 가리 라



솔 아 솔아 푸르른 솔아 셋 바람에 떨지 마 - 라



창 살 아래 네가 묶인 곳 살 아서만 나리 라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함께가자우리 이 길을 투쟁속에동지 모 -아
 함께가자우리 이 길을 동지의손맛잡 고 . 가로
 질러들 판- 산이 라면어기 어 차 넘 어주 고 사-
 나운파 도- 바다 라면어기 어차-건 너주 자
 해 떨어져어두 운 길을 서 로일으켜주 고 가다
 못 가면쉬었다 가 자 아픈 다리 서로기대 며 함께
 가자 우리이 길 을 마침내 하 나됨을위하 여

주거연합의 회원이 되시면...

같은 지역내의 회원들과 함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모임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합대회, 공청회, 사회학교, 강연회 등)

지역 모임을 통해 회원 자신의 실정에 맞는 주거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본 단체가 발행하는 자료 및 타 지역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연합은 지역주민들의 작은 정성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송금구좌

- 011-24-0184-445 김영준(국민은행)
- 504502-90-105033 김영준(주택은행)
- 032-01-085476 김영준(농협)
- 010041-0137731 김영준(체신부 각 우체국)